

한국 디자인박물관을 위한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 제안: 디자인 아카이브를 위한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

A Proposal for Curating Contemporary Design for the Future National Design Museum in South Korea: A Rapid Response Collecting Strategy for the Design Archive

서민경(건국대학교 강사)

Seo Minkyung (Konkuk University Lecturer)

1. 서론
2. 동시대 디자인 아카이빙의 흐름
 - 2.1. 초기 동시대 이론과 실천
 - 2.2. 21세기 V&A 박물관의 동시대 디자인 콜렉팅
 - 2.3.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의 확산
3.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의 적용
 - 3.1.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의 특성
 - 3.2.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 제안
4. 결론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개관에 앞서 박물관을 어떤 전시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디자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획 전시보다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자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Rapid Response Collecting)’ 전략을 소개하고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무엇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고자 했다.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은 2014년 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에서 발표한 이래로 서구 박물관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전략이 의미 있는 지점은 바로 전시된 사물이 특정 사회의 사건이나 이슈를 생생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성’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물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전복적인 큐레이팅 실천은 관람자의 심리적 개입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이 역사 연구자들에게 당시를 이해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디자인 박물관, 디자인 큐레이팅, 디자인 콜렉션,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동시대 디자인, 디자인 아카이브

Abstract

In anticipation of the opening of the National Design Museum in South Korea, the kinds of objects that should be featured at the museum have been wid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design. The overarching opinion when considering permanent exhibitions for the museum’s collections in order to establish its own identity is that they would be far more beneficial than planning temporary exhibitions and events during the initial phase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strategy of “Rapid Response Collecting” as one of many ways to plan the collecting of contents for the museum. This will be carried out through the evaluation of several case studies. Demonstrating the strategy of “Rapid Response Collecting,”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museum house several objects that reflect Korean society and culture over the past five years. Since its adoption by the Victoria & Albert Museum in 2014, the strategy of “Rapid Response Collecting” has quickly gained popularity amongst leading Western museums and galleries. The most meaningful aspect of this strategy is the displayed objects’ reflections of vivid events and issues in any given

society. This provocative practice of curation can be effective in helping an audience to psychologically engage with the exhibition. Additionally,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the strategy is valuable to look at closely because design can be utilized as a tool to provide insight for history researchers to understand a certain time period.

Key Words

Design Museum, Design Curating, Design Collection, Rapid Response Collecting, Contemporary Design, Design Archive

1. 서론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디자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아카이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해당 박물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202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디자인 아카이브 포럼’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키워드로 동시대 중심의 디자인박물관이 제안되었다.¹⁾ 본 연구는 포럼 내용의 연장

1 오창섭,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성격과 디자인 아카이브」, 『디자인 아카이브 포럼 자료집』, (KCDF, 2020), pp.14-18

선상에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시대 디자인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박물관의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맥락에서 동시대 디자인 아카이빙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동시대 담론이 시작된 시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 피터 오즈번(Peter Osborne)의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영국 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이하 V&A)에서 전개된 동시대 디자인 콜렉팅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Rapid Response Collecting)’ 전략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 이론에 대한 문헌 조사와 디자인 큐레이팅 활동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 사회를 비추는 디자인에 대한 큐레이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의 흐름

2.1. 초기 동시대 이론과 실천

동시대 미술과 비교했을 때 동시대 디자인 담론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동시대 디자인은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간주되지만 시기적으로 언젠가 동시대 디자인의 시작점으로 봐야 할지, 어떤 디자인이 동시대 디자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터 오즈번(Peter Osborne, 2013)은 동시대 개념의 뿌리를 삶의 주기 속에서 “같은 시간 안에 함께 살아있고, 존재하며, 발생하는”²⁾ 것으로 보았다. 그는 동시대 미술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이후이다. 전쟁 이후 서구인들은 전 지구화된 공통 감각을 획득했다. 따라서 전쟁의 참혹함을 지우고 새 시대를 여는 미술이 동시대 미술로 정의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무렵으로, 당시 등장한 포스트 개념 미술이 서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대 미술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동시대 미술의 개념은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남미와 일본까지 퍼지면서 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일부 국가와 구소련에서는 프로파간다 예술이 동시대 미술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을 기점으로 한다. 동시대 미술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베를린 장벽과 함께 와해되었다. 1990년대부터 범람하는 각종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공통 감각이 세계 속으로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³⁾

오즈번이 파악한 동시대의 특성은 미래를 향한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적 이상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분열적 관계 속 ‘존재하지 않는 통합’을

2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Verso, 2013), p.15

3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pp.18-21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 속에서 동시대는 ‘허구적인 현재성’이며, 멈춰 있는 순간 속에서 ‘일시적인 것’을 포착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⁴⁾ 이처럼 동시대를 시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 2016)은 지극히 서구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별로 동시대 미술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로 구분하기보다는 담론을 통해 파악해야 하며, 동시대를 개념적으로 포획하려는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오늘날의 보수적인 미술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⁵⁾ 비숍의 통찰 속에서 오즈번이 파악한 동시대 개념은 서구에서 유통된 동시대 미술의 지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

영국 V&A에서 공식적으로 동시대 디자인 컬렉팅이 시작된 시점은 1947년 피터 플라우드(Peter Floud) 경이 순회 부서(Circulation Department)를 맡으면서였다. V&A의 다른 부서들이 1830년대 이전의 유물을 주로 수집했던 것에 반하여 순회 부서의 업무는 19세기와 20세기 사물을 수집하고, 영국 내 아트 스쿨을 돌면서 전시를 개최하는 일이었다.⁶⁾ 순회 부서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굿 디자인의 표본을

4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pp.23-24

5 클레어 비숍, 『래디컬 뮤지엄』, 구정연 외 옮김, (현실문화, 2016), pp.27-37

6 Joanna Weddell, “The Etho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Circulation Department 1947-1960”, in *Design Objects and the Museums*, (ed.) Liz Farrelly and Joanna Weddell, (London: Bloomsbury, 2016), p.15

수집하여 전시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섰다. 1977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해산될 때까지 순회 부서의 이름으로 등록된 V&A 컬렉션은 총 32,000점에 달한다. 순회 부서의 초기 수집품은 장거리 운송이 용이한 평면적인 작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텍스타일과 그래픽 디자인은 당시 순회 부서의 주요 수집 대상이었다.⁷⁾ 그러나 1956년부터 디자인 카운슬의 ‘디자인 센터 어워드(Design Centre Award)’ 수상작을 소장하게 되면서 산업 제품이 다수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플라우드 경은 윌리엄 모리스의 예술공예운동의 영향으로 기계가 사물의 품질을 저하한다는 강한 믿음 속에서 상업적인 사물을 수집하는 것을 경계했다. 따라서 산업 제품이나 일상용품보다는 장식 예술품이나 이름 있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수집하는데 관심을 쏟았다.⁸⁾

1981년 V&A는 콘란 재단(Conran Foundation)과 손을 잡고 ‘보일러하우스 프로젝트(Boilerhouse Project)’를 시작했다. 박물관 내 버려진 공간이었던 지하 보일러실을 동시대 산업디자인 제품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5개년

프로젝트는 장식미술 컬렉션에 치중된 V&A의 높은 문턱을 허무는 기획이었다. 디렉터 스테판 베이리(Stephen Bayley)의 지휘하에 첫 전시 ‘예술과 산업: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속 디자인의 한 세기(Art and Industry: A Century of Design in the Products We Use)’(1982)가 열렸다. 이는 V&A의 기존 컬렉션과 대적점에서 동시대적 디자인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전시였다. 5년간 총 23번의 전시가 기획되었고 1만 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실로 몰려들었다.⁹⁾ 이러한 보일러하우스 프로젝트의 동시대 디자인 실험은 몇 년 후 개관한 런던 디자인뮤지엄의 초석이 되었다.

2.2. 21세기 V&A 박물관의 동시대 디자인 컬렉팅

V&A에서 동시대 팀(Contemporary Team)이 다시 출범한 때는 2002년이다. 동시대 팀은 디자인의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면서 디자인 사물뿐만 아니라 드로잉, 모델, 프로토타입, 재료 샘플, 작가 인터뷰를 함께 아카이빙했다. V&A 컬렉팅 계획(2004)에 따르면, 보일러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촉발된 런던 디자인뮤지엄의 컬렉션은 대량 생산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발전과 제작, 마케팅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컬렉팅 방향과 다르다고 역할을

7 Joanna Weddell, "Room 38A and beyond: Post-war British design and the Circulation Department", in *V&A Online Journal*, no. 4, (2012), <http://www.vam.ac.uk/content/journals/research-journal/issue-no.-4-summer-2012/room-38a-and-beyond-post-war-british-design-and-the-circulation-department>, (2020.3.25)

8 Joanna Weddell, "The Etho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Circulation Department 1947-1960", pp.18-21

9 Tom Wilson, *The Story of the Design Museum*, (London: Phaidon, 2016), pp.24-25

구분한다.¹⁰⁾ V&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부에서 유치한 ‘디자인 펀드(Design Fund to Benefit)’를 통해 매년 한화 15억 상당의 예산을 동시대 디자인 작품 구매에 활용했다. ‘동시대 팀’이었던 담당 부서명도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쳐 2015년 디자인, 건축, 디지털 부서로 자리 잡혔다. 디자인 펀드로 수집된 디자인 컬렉션들은 매년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기간에 박물관에서 공개되었다. 그중에서도 2013년 컬렉팅 된 3D 프린터로 제작한 플라스틱 권총 ‘리버레이터(Liberator)’의 복제품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리버레이터는 공개 시점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5월, 미국에서 오픈 소스를 공유하는 한 웹사이트에 리버레이터의 설계도가 게시되었기 때문이다.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조립하면 바로 살상용 무기가 되는 리버레이터는 공개된 지 이틀 만에 10만 회나 다운로드되었다. 미국 정부는 내용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리버레이터의 제작자이자 해당 웹사이트 대표 코디 윌슨(Cody Wilson)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해 V&A는 디자인펀드 예산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버레이터를 재빠르게 수집했다. 이는 펀드를 통해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 위주로 구매하던 박물관의 기존 행보와 조금 다른 것이었다. 물론 박물관에서

리버레이터를 수집한 것은 무기 소지를 정당화하거나 설계도 확산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당시 V&A 큐레이터였던 야나 솔츠(Jana Scholze)는 점차 유형의 디자인보다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중요해지는 디지털 시대에서, 리버레이터는 사물의 생산 방식과 기술, 법 규제와 관련된 이슈, 사회로 확산되었을 경우 불확실성 등 무수히 많은 논의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수집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¹¹⁾

리버레이터가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포함된 것은 V&A의 동시대 컬렉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V&A는 2014년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 중요한 사건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그해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을 통해 수집한 사물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매년 그 수를 늘려나갔다. 2019년까지 이 전략의 일환으로 [표 1]에서처럼 총 38점의 아이템이 수집되었다. 각각의 사물, 이미지, 뉴미디어는 인권·종교·환경 문제, 테크놀로지,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등 오늘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2.3.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의 확산

V&A의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은

10 Victoria & Albert Museum, *V&A Collecting Plan*, (V&A, 2004), pp.44-45

11 Jana Scholze, "Ghosts and Dancers: Immaterials and the Museum", in *Design Objects and the Museums*, (ed.) Liz Farrelly and Joanna Weddell, (London: Bloomsbury, 2016), pp.65-66

No.	V&A Rapid Response Collection	Type	Museum Number	Issue
1	리버레이터(The Liberator) ¹²⁾	사물	CD.1:1 to 16-2013, CD.40-2014	테크놀로지
2	프라이마크 바지(Trousers)	사물	CD.2-2013	노동자 인권
3	선진시 체육복(Uniform)	사물	CD.8:1-2-2014	문화
4	선진시 메뉴판(Menu)	이미지	CD.15-2014	문화
5	엘레베이트 케이블(UltraRope)	사물	CD.25:1 to 4-2014	테크놀로지
6	이케아 인형(Lufsig)	사물	CD.26:1,2-2014	시민운동
7	모바일 게임(Flappy Bird)	뉴미디어	CD.27-2014	게임중독
8	구두(Fifi shoes)	사물	CD.31:1 to 8-2014	인종문제
9	스마트 디바이스(Thermostat)	사물	CD.36:1 to 10-2014	테크놀로지
10	전자담배(Vype Reload)	사물	D.37:1 to 11-2014	테크놀로지
11	웨어러블 디바이스(WT41N0)	사물	CD.39:1 to 19-2014	노동자 인권
12	VR 헤드셋(Oculus Rift)	사물	CD.49:1 to 20-2014	테크놀로지
13	보도블럭(Architectural spikes)	사물	CD.50:1 to 20-2014	사회적 약자 인권
14	레고(The Research Institute)	사물	CD.51:1 to 6-2014	여성 인권
15	우편도장(Tom of Finland stamps)	이미지	CD.54:1-7-2014	성소수자 인권
16	DNA 키트(Personal Genome Service)	사물	CD.59:1 to 6-2014	개인정보
17	홍콩 우산(Umbrella)	사물	CD.60 to 61-2014	시민운동
18	인조 속눈썹(Katy Perry false eyelashes)	사물	CD.24:1 to 5-2014	글로벌리즘
19	자전거 핸들(Bolide HR handlebar)	사물	CD.1-2015	테크놀로지
20	모바일 폰(X-TIGI S18)	사물	CD.19:1-6-2015	테크놀로지
21	스마트 폰(iPhone 6)	사물	CD.2-2015	테크놀로지
22	벽타일(Julie Tile for A House for Essex)	사물	CD.20-2015	예술성
23	바비인형>Hello Barbie doll)	사물	CD.33:1 to 6-2015	테크놀로지
24	스마트 폰(Blackphone)	사물	CD.9:1-8-2015	테크놀로지
25	스마트 인형(Mon Mon)	사물	CD.25:1 TO 6-2015	테크놀로지
26	리플렛(Vote Leave)	이미지	CD.75-2016	브렉시트
27	드론(Zano)	사물	CD.8-2016	테크놀로지
28	수영복(Ahiida Modest-Fit Burqini)	사물	CD.90:1, 2-2016	종교 갈등
29	난민 깃발(Refugee flag)	사물	검색안됨 ¹³⁾	난민
30	코빈 티셔츠(Corbyn t-shirt)	사물	CD.294-2017	선거캠페인
31	푸시 모자(Pussy power hat)	사물	CD.5-2017	여성 인권
32	스마트 안경(Spectacles)	사물	CD.13:1 to 6-2018	테크놀로지
33	게임 컨트롤러(Xbox Adaptive Controller)	사물	CD.39-2018	테크놀로지
34	모기 이모지(Emoji)	뉴미디어	CD.23-2018	감염 예방
35	환경 캠페인(Extinction Rebellion)	이미지	CD.1 to 15-2019	환경운동
36	핑귄 북(The Fault In Our Stars)	사물	CD.18-2019	문화
37	직소 캠페인(Jigsaw Immigration campaign)	이미지	CD.20-2019	브렉시트
38	생리컵(TAMPAX)	사물	CD.20-2019	여성, 환경

[표 1] V&A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션 (소장년도 순)¹⁴⁾

서구 진보적인 성향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동시대를 해석하는 대안적인 방법론으로서 도입 및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그중 하나인 국립 아일랜드 박물관(National Museum of Ireland)은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 보수적인 특색을 띠는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동성애 결혼법,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국민 투표가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시행되었다. 박물관 큐레이터 브렌다 맬로운(Brenda Malone)은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을 기록하자는 차원에서 '아일랜드 컬렉션'으로 국민투표 캠페인 선전물, 성 소수자들이 입은 의상 등을 수집했다.¹⁵⁾ 한편 뉴욕 엠뮤지엄(Mmuseumm)은 2012년 문을 연 비교적 신생 사립 갤러리다. 이곳은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인 알렉스 칼만(Alex Kalman)의 지휘 아래 '오브젝트 저널리즘(Object Journalism)'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화와 사회를 조명하는 사물들을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장벽 프로젝트 타이핑 미니어처, 방탄용 어린이 백팩, ISIS 화폐 등이 그 예이다.¹⁶⁾

큐레이터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을 적용한 전시 관람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즉 박물관이라는 보수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사물을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놀라움과 함께, 각 사물이 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를 열린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술작품은 난해할 것이라는 편견은 사라지고 작품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품에 대한 감상 소감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전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¹⁷⁾

2018년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 모자인 '키프'를 전시했다. 이 모자를 쓰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은 유대인 혐오 범죄(안티-세미티즘)의 타깃이 되어 공격을 받았다. 유대인 박물관의 최초 래피드 리스폰스 디스플레이로 소개한 '키프 촉매(Kippah Catalyst)' 전시는 최근 독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했다.¹⁸⁾ 한편, 국립 아프리카-아메리칸 역사 문화

12 2013년 소장된 리버레터는 영국 3D 프린터 업체를 통해서 생산한 복제품이고, 미국에서 수입한 리버레터는 2014년 소장되었다.

13 V&A는 2016년 12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난민 깃발을 컬렉팅했다고 밝혔으나 온라인 컬렉션 상에 소장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14 2019년 소장품 역시 온라인 컬렉션 상에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 2019년 당시 전시되었던 37번과 38번 작품의 캡션 내 소장품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오류로 추정된다.

15 Jüdisches Museum Berlin, <https://www.jmberlin.de/en>, (2019.8.23)

16 3 Ways To Explore Mmuseumm 2020, <https://www.mmuseumm.com>, (2019.8.12)

17 Seo Minkyung, "Rapid Response Collecting as an Alternative Strategy for Museums", Thesis (MA), (Kingston University, 2019)

18 Jewish Museum, "The Kippah Catalyst", Jewish Museum, <https://www.jmberlin.de/en/press-release-31-may-2018>, (2018.5.31)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의 2018년 '사진 그 이상(More Than a Picture)' 전시에서도 미국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인종 차별적 움직임을 고발하는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을 소개했다. 2014년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구호를 앞세운 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수집한 가스 마스크, 의상을 함께 전시했다.¹⁹⁾

한편, 코로나 19의 여파로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 격리가 일상화된 분위기 속에서 박물관들이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0년 3월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국립 핀란드 박물관(National Museum of Finland)과 덴마크 베스트티메를란 박물관(Vestthimmerlands Museum)에서 텅 빈 거리를 촬영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했다.²⁰⁾ 이러한 박물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고려해볼 때, 2014년 발표된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은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Ivette Feliciano and Zachary Green, "Museums are curating an era of social movements in real time", PBS, <https://www.pbs.org/newshour/show/museums-are-curating-an-era-of-social-movements-in-real-time>, (2018.11.24)

20 Lisa Abend, "Museums Scramble to Document the Pandemic, Even as It Unfold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31/arts/design/museums-coronavirus-pandemic-artifacts.html>, (2020.3.31)

3.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의 적용

3.1.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의 특성

동시대 디자인 사물을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큐레이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빠르게 진단하여 대표 사물을 정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 주기 속에서 대량생산된 사물은 단종되거나 매진 등을 이유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그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사물을 수집할지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 단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둘러싼 옹고 그림의 판단은 대중들의 몫으로 미룬다. 여기서 큐레이터는 언론 기자의 시선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삭제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논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일 콜렉션보다 풍부한 맥락의 제공을 위해 아카이브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한다. 김상규(2018)는 오늘날 콜렉션과 아카이브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콜렉션은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개별 콘텐츠를 의미하지만, 아카이브는 그 콘텐츠를 둘러싼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²¹⁾

21 김상규, 「동시대적 디자인 아카이빙의 개념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31 No.4, (한국디자인학회, 2018), pp.97-108, p.104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 또한 V&A 소장품 등록번호에 나타나듯이 하나의 사안을 해석하는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여러 관련된 사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이 국내 박물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국내 박물관들은 유물 위주, 작가 중심으로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나 제조사가 밝혀지지 않은 일상 사물이 박물관 수장고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무척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실험적 방법론으로서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 시의성을 가진다. 작가주의적 디자인과, 생활에 유용한 일상적 디자인에 주목했던 기존의 움직임보다 한발 더 나아가,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은 현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적 개입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3.2.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 제안

본 연구는 국립 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한국의 맥락을 반영하는 동시대 디자인 사물에 대한 큐레이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디자인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과 맥락을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사물, 이미지, 공간으로 분류되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영역은 이제 디지털과 뉴미디어 영역으로 확장된 지 오래되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모지,

디지털 게임, 웹사이트 모두 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박물관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시대 상황과 소비 방식에 맞게 변화하는 디자인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을 제안하는 일은 미래에 개관할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표 2]는 2015년부터 2020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한국 사회를 비추는 동시대 디자인 사물 10점을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팅 전략에 따라 제안한 것이다. 각 콜렉션(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외 동시대 큐레이터들이 영국 아트 카운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동시대 콜렉팅 뮤지엄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적 툴킷(2020)”²²⁾ 연구를 참고했다. 이는 언론 취재 윤리와 마찬가지로 큐레이터들이 동시대 사물을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룬 연구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집단을 비방하거나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콜렉션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의 몫으로 넘기며, 선정에 있어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아래부터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 각 사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22 Ellie Miles, Susanna Corder, Jen Kavanagh (ed.), *Contemporary Collecting: An ethical toolkit for museum practitioners*, (London Transport Museum, 2020), pp.5-15

No.	미래 디자인박물관 콜렉션(안)	Type	Issue	년도	보도매체	주요 내용
1	KF 마스크	사물	코로나19	2020	조선일보 ²³⁾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2	'NO, 보이콧 재팬' 로고	디지털	일본산 불매운동	2019	서울경제 ²⁴⁾	정부 조치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김용길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안
3	핵폭탄 마스크팩	사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18	조선일보 ²⁵⁾	남북관계 완화에 따라 수분 '핵'폭탄 마스크팩 출시
4	한반도기	사물	평창동계올림픽	2018	연합뉴스 ²⁶⁾	올림픽 개막식 남북단일팀 공동 입장, 독도 표기 논란
5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이미지	모바일특화 금융서비스	2017	서울경제 ²⁷⁾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 디자인
6	촛불 집회 및 태극기집회 시위물	사물	박근혜 탄핵	2017	중앙일보 ²⁸⁾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와 관련,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양측 충돌
7	82년생 김지영 책	사물	페미니즘	2016	동아일보 ²⁹⁾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한국 페미니즘 담론에 불을 지핀 책
8	갤럭시노트7	전자기기	테크놀로지	2016	연합뉴스 ³⁰⁾	배터리 폭발 문제로 생산 중단 및 전량 리콜
9	지하철역 사인물 (신천역 → 잠실새내역)	이미지	부동산	2015	한겨레 ³¹⁾	2호선 지하철역 신천역 → 잠실새내역, 성내역 → 잠실나루역 명칭 변경
10	전자담배	전자기기	담뱃값 인상	2015	경향신문 ³²⁾	국민건강증진 금연정책 및 세수확장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과 역효과

[표 2] 한국적 맥락에 따른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 제안(년도 순)

23 정석우, "숨쉬기 힘든 KF94 벗었다 썼다 하지 말고 KF80 계속 써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0164.html, (2020.1.28)

24 강신우, "'보이콧 재팬' 로고 제작자 '한목소리 내는데 도움 됐으면'",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lew/1VLR7ANDGK>, (2019.7.19)

25 윤동빈, "이번엔 코엑스 매장에 김정은 얼굴 '핵폭탄 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0156.html, (2018.12.11)

26 이종철, "남북 공동입장 깃발 '한반도기' 유래와 합의 배경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7182600007>, (2018.1.17)

27 김상민, "카카오뱅크의 인기 요인 2가지 '체크카드'와 '이모티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lew/1OIOTS9ISM>, (2017.7.31)

28 심동준, 이해원, "현재 앞 시민들 '기쁨의 눈물' vs

'분노의 눈물'",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359443>, (2017.3.10)

29 이해리, "'82년생 김지영' 공감의 힘 아시아 전역 확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7/98566974/9?comm>, (2019.11.28)

30 임화섭, "삼성전자 협력사 '갤럭시노트7 생산 일시중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0061700017>, (2016.10.10)

31 조승현, "'잠실' 앞세운 지역 이기주의" '신천역' 왜 '잠실새내역'이 됐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019.html, (2015.10.22)

32 전병역, "담뱃값 인상 2년 담배회사 이익 늘리고 전자담배 풍선효과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111009011, (2017.10.11)

KF 마스크(2020)

2020년 초부터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다. WHO는 3월 11일 팬데믹을 선포했고,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불안감의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던 KF 마스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뜻하며, 뒤에 붙는 숫자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코로나 19가 한국을 덮치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전국민이 대형 마트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사재기 때문에 가격은 수십 배로 치솟았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강력한 조치로 인해 마스크는 차츰 안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대구 신천지'로 대표되는 종교인, 이태원을 거점으로 모이는 성 소수자들을 감염의 숙주로 삼으며 우리 사회의 가려진 일면을 거침없이 파헤쳤다. 그에 따라 외국인, 특정 지역인,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NO, 보이콧 재팬' 로고(2019)

2019년은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해였다.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백색 국가 지정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면 시작되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 목록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고, 전국 규모로 매장을 운영하는 유니클로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해당 브랜드는 할머니가 손녀에게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말하는 방한용 제품 광고를 자막과 함께 공개했는데, 위안부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측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해석되면서 불매 운동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용길 그래픽 디자이너는 일본 국기가 연상되는 'NO, 보이콧 재팬' 로고를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많은 이들이 해당 로고를 불매 운동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불매 운동은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저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다.

핵폭탄 마스크팩(2018)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자 핵 위협으로 인해 그동안 경직되었던 남북 관계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다. 정상회담 식사 메뉴였던 평양냉면도 덩달아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한편 강남 코엑스몰에서는 '미백 탄력 핵폭탄 팩'이라고 광고가 붙은 마스크팩이 판매되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얼굴과 마스크팩을 합성하여 회화화한 이 제품은 한 의류 업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판매된 상품이다. 전쟁을 연상시키는 용어인 '핵폭탄'을 유머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반도기(2018)

2018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졌다. 2월 9일 개막식 중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1989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제정한 한반도기는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으나 우리 측은 이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함에 따라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결부하지 말라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의 권고에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여론은 일본을 의식하지 말고 한반도기 내 독도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2017)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부터 모바일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중 은행과 달리 복잡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앱 설치부터 계좌 개설까지 7분 만에 처리되는 신속성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첫날에만 18만 명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신설했다. 대기자 수가 많아 신청 후 발급까지 한 달이 걸리는 체크카드는 기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2년 11월 출시된 이 캐릭터들은 '카카오 프렌즈'라고 불리며 스마트폰 메신저 이모티콘 시장을 선점해왔다. 이후 2014년 4월 서울 신촌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전국 매장을 통해 캐릭터 사업의 범위를 확장했다. 현재까지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개발된 카카오 프렌즈 상품군들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받고 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시위물(2017)

2017년 3월 10일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다. 2013년 세월호 침몰 사고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의 이슈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에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고 #박근혜OUT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전파되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무죄와 사면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는 보수, 기독교, 노년층을 위주로 결집했다. 촛불 집회 세력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로 광화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태극기 집회 세력은 서울역, 종각역을 중심으로 집회를 지속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파 우려로 인해 서울시에서 단속에 나서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다.

82년생 김지영 책(2016)

한국 페미니즘에 불을 지핀 도서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10월 14일 출간되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와 성 차별적 어려움을 담은 이 소설은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2018년 종이책 82만 부, 전자책 18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총 100만 부 판매를 달성했다. 이는 전자책의 보급과 출판 업계의 불황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성과였다. 또한 16개국에 판권이 팔리면서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특히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9년 10월 23일 동명의 영화가 개봉했고, 18일 만에 누적 관람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인해 촉발된 미투(MeToo) 운동으로 페미니즘이 확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났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 혐오가 덩달아 커지면서, 책의 내용이 현대 여성의 일반적인 삶과 다르게 과장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남녀 갈등에 불을 지폈다.

갤럭시노트 7(2016)

2016년 8월 19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는 방수와 홍채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관심을 모으면서 국내 예약 판매만 40만대에 달했다. 그러나 8월 24일 한 사용자로부터 충전 중 폭발했다는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등장한 후로 9월 1일까지 3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삼성은 스마트폰 배터리 문제라고 판단,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리콜을 시작했다. 한편 해외로 수출된 갤럭시노트7의 폭발 또한 이어지면서 항공기 수화물 및 기내반입이 일부 국가에서 금지되기도 했다. 리콜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10월 10일 출시 두 달 만에 삼성은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유일한 경쟁사로서 입지를 다지던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나 2017년 9월 15일, 후속 제품인 갤럭시노트 8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를 만회했다.

지하철역 사인물(2015)

한국 사회에서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격 상승을 위해 부동산 담합을 시도하는 일도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된다. 집 주변 지하철역의 유무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지하철까지 도보

10분 이내 반경을 일컫는 용어인 '역세권' 주변 주거시설은 다른 지역과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은 대부분 지하철 노선 유치에 집중된다. 88올림픽 이후 롯데 기업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은 송파에서도 가장 부동산값이 높은 지역으로 악명 높다. 2호선 잠실역 노선의 전후로 성내역과 신천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으로 이 역들의 명칭은 2010년 '잠실나루역'과 2015년 '잠실새내역'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성내역과 신천역이 실제 행정 주소 상 동(洞) 이름과 다르고, 특히 신천역은 마포구에 위치한 신촌역과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각각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나 그 이면에는 새롭게 바꾼 명칭에 '잠실'이라는 지역명을 끼워 넣으면서 집값 프리미엄을 노리는 욕망도 함께 녹아있다.

전자담배(2015)

2014년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세수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2015년부터 담배 가격을 2천 원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돌입했으며 판매점들은 품질 안내문을 붙이며 2015년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다. 한편 담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흡연자 중 일부는 가게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담배로 갈아탔는데 그로 인해 전자담배의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이라는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니코틴 함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건물 내뿐만 아니라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니면 외부에서도 담배를 함부로 피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카페와 찜질방, 식당 등의 한구석에 마련되어 있던 흡연실의 모습도 모두 사라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음에 따라 흡연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상으로 설명된 10점의 동시대 사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이면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물이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사물에 다른 맥락이 추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 디자인박물관을 위해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큐레이터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적합한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공산품들을 의식 있는 기관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집하여 관련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기억을 담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 사물들은 한국 사회를 열린 시선에서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 V&A의 동시대 사물 컬렉팅 활동을 개괄하고, 특히 2014년 발표한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에 따라 박물관에서 수집한 소장품 목록을

살펴보았다. 이후 이 전략이 서구권 박물관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어떤 수집 활동을 촉진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이 수집의 신속성, 서술의 균형성, 수집품의 아카이빙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국내 미술관의 디자인 컬렉션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적 맥락과 상황에 맞는 동시대 디자인 큐레이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10점의 동시대 디자인은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일면을 설명하고자 했다. 제안한 아이템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 작품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름 있는 디자이너가 참여하거나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놓인 흔한 사물이기 때문이다.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 제안은 박물관이라는 제도 속에서 작가 중심의 디자인 컬렉션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의 모습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기 위해서다. 래피드 리스폰스 컬렉팅 전략에 따라 제안된 사물은 미래 세대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상규, (2018), 「동시대적 디자인 아카이빙의 개념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31 No.4, 한국디자인학회,

<http://dx.doi.org/10.15187/adr>
(2018.11.31)

- 오창섭, (2020), 「국립 디자인박물관의 성격과 디자인 아카이브」, 『디자인 아카이브 포럼 자료집』, KCDF
- 클레어 비숍, (2016), 『래디컬 뮤지엄』, 구정연 외 옮김, 현실문화
- Ellie Miles, Susanna Cordner, and Jen Kavanagh (ed.), (2020), *Contemporary Collecting: An ethical toolkit for museum practitioners*, London Transport Museum
- Jana Scholze, (2016), “Ghosts and Dancers: Immaterials and the Museum”, in *Design Objects and the Museums*, (ed.), Liz Farrelly and Joanna Weddell, London: Bloomsbury
- Joanna Weddell, (2016), “The Etho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Circulation Department 1947–1960” in *Design Objects and the Museums* (ed.), Liz Farrelly and Joanna Weddell, London: Bloomsbury
- Joanna Weddell, (2012), “Room 38A and beyond: Post-war British design and the Circulation Department”, in *V&A Online Journal*, no. 4, <http://www.vam.ac.uk/content/journals/research-journal/issue-no.-4-summer-2012/room-38a-and-beyond-post-war-british-design-and-the-circulation-department> (2020.3.25)
- Liz Farrelly and Joanna Weddell (ed.), (2016), *Design Objects and the Museums*, London: Bloomsbury
- Peter Osborne, (2013),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Verso
- Seo Minkyung, (2019), “Rapid Response Collecting as an Alternative Strategy for Museums”, Thesis (MA), Kingston University
- Tom Wilson, (2016), *The Story of the Design Museum*, London: Phaidon
- Victoria & Albert Museum, (2004), *V&A Collecting Plan*, V&A
- V&A Search the Collections, <http://collections.vam.ac.uk> (2019.8.22)
- Jüdisches Museum Berlin, (2019.8.23), <https://www.jmberlin.de/en>
- 3 Ways To Explore Mmuseumm 2020, (2019.8.12), <https://www.mmuseumm.com>
- National Museum of Ireland, (2019.8.25), <https://www.museum.ie>
-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 Culture, (2019.8.30), <https://nmaahc.si.edu>

표 차례

- [표 1] V&A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
- [표 2] 한국적 맥락에 따른 래피드 리스폰스 콜렉션 제안